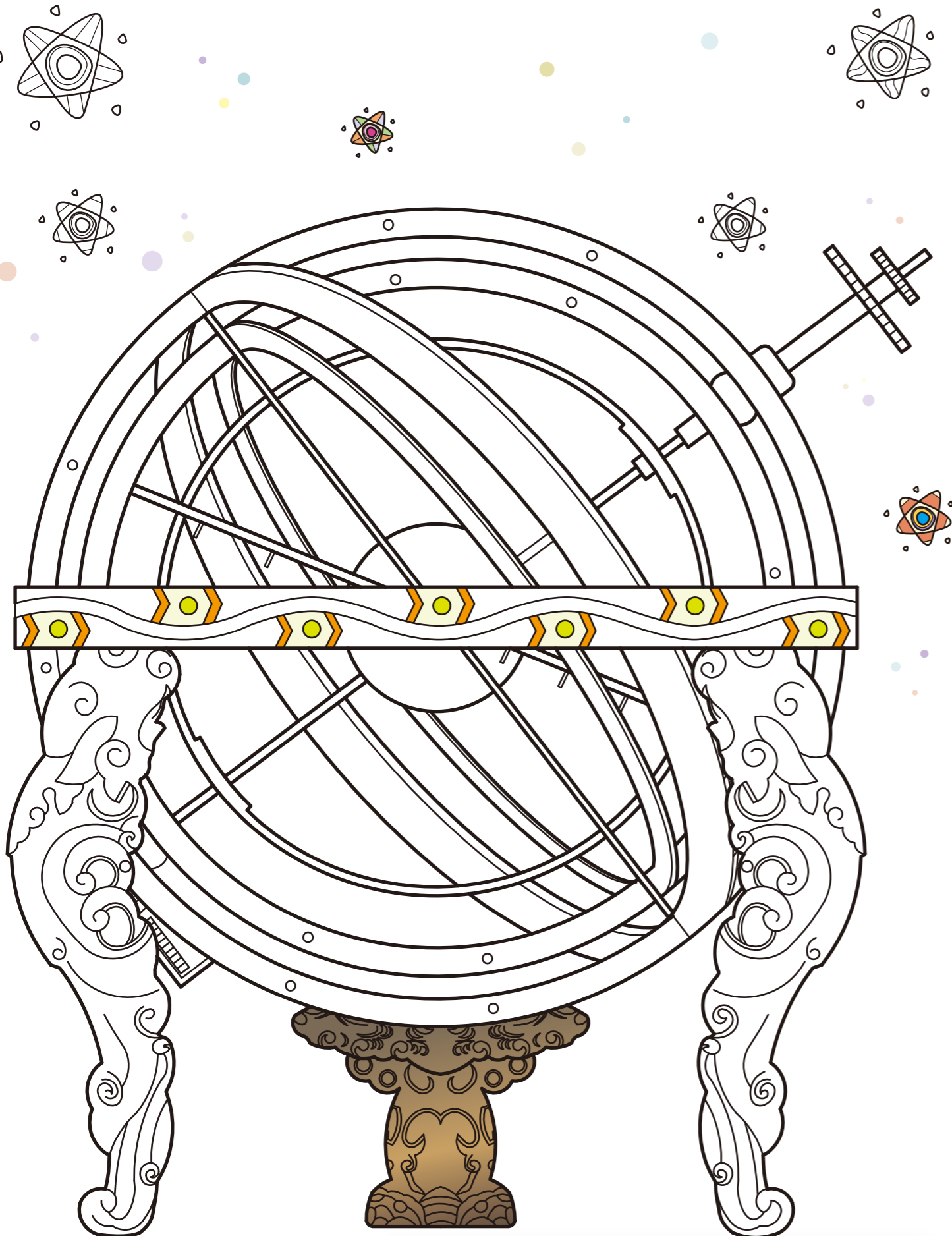


홍대용과 혼천의



담헌 홍대용(1731~1783)



담헌 홍대용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려준 **실학자**입니다.

작은아버지를 따라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 망원경을 통해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 **농수각**이라는 개인 천문대를 지어 **혼천의**를 만들어 놓아 두고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기도 하였습니다.

혼천의

혼천의는 해와 달, 5행성(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과 위치를 알아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알려지는데, 지구 주위로 태양과 달 등의 행성이 돌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의 중심 부분을 시계 장치에 연결하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 계절과 시간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혼천의는 만 원권 지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망원경을 말합니다. 천 리까지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하였으나, 사실 '천 리'는 "매우 멀다"는 뜻일 뿐 실제로는 백 리 정도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 리 경

조선 현종 임금 때에 천문학교수였던 송이영이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혼천의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적인 시계를 결합한 천문기구입니다.



혼 천 시 계

실학자와 유물 하나

홍대용과 혼천의

박지원과 수레



실학자와 유물 하나
12283 국민위생관

연암 박지원(1737~1805)



연암 박지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실천하려 했던 실학의 한 유파인 북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1780년(정조4년) 사촌을 따라 청나라 사신단에 동행한 후, 이용후생에 도움이 되는 청나라의 실제 생활과 기술을 눈여겨보고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청나라의 문화를 소개하였으며, 당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비판과 개혁을 논의하였습니다.

수레



이용후생파(중상학파) 실학자로 북학사상을 전개한 박지원의 대표적인 주장 중의 하나가 **수레**의 사용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다지 가난함은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하며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레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연암 박지원이 저술한 책의 제목과 알맞은 설명을 바르게 연결 하 보세요.

양반전



허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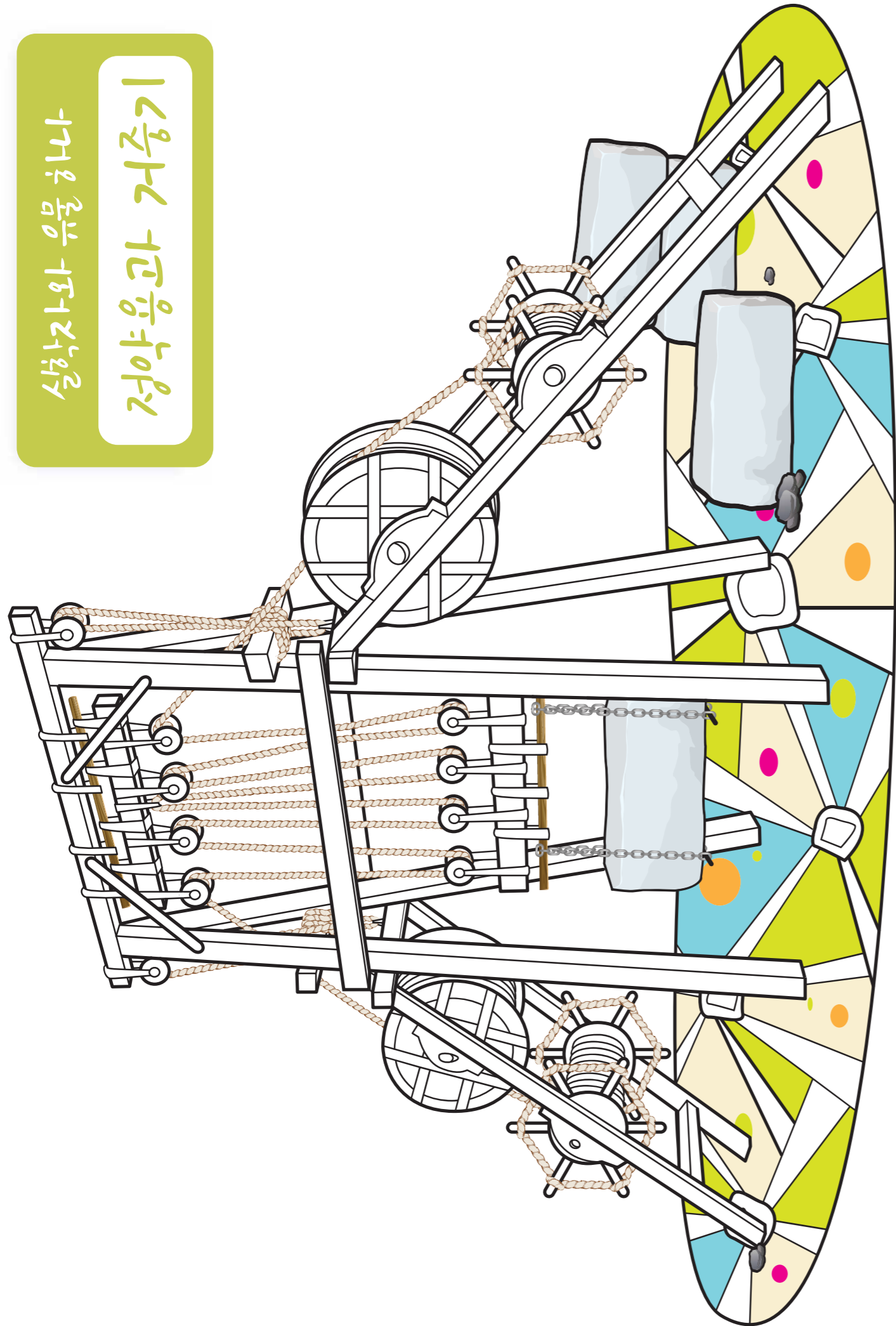


열하일기

- 1780년 청나라에 다녀온 뒤 남긴 책으로써 청나라의 문물제도와 사회·경제·체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륭황제의 여름 별궁인 열하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 박지원의〈연암외집〉에 수록되어 있는 한문 단편소설로 양반사회의 형식적이고 위선에 찬 무능력한 양반들의 생활을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입니다.
- 열하를 다녀온 뒤 저술한 소설로 실학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무능력한 양반들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약용과 거중기

실학자와 유물 하나
정약용과 거중기



다산 정약용(1762~1836)



다산 정약용은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 실학자입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과 건축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조 임금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후 반대파의 비판을 받아 18년간이나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고, 이 기간에 수많은 실학 관련 저술을 남겼습니다.

거중기



거중기는 조선 시대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고정 도르레와 움직 도르레를 이용해 좌우 양쪽에서 줄을 당겨 무거운 돌을 작은 힘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중기는 수원화성 건설에 이용되었습니다. 공사 시간을 단축하고, 일손과 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 아래 그림에 맞는 설명을 바르게 연결 해 보세요.



- 배 다리 : 정조 임금이 수원 화성에 행차할 때 건너기 위해 만든 임시다리입니다. 작은 배 여러 척을 물 위에 띄워놓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 만들었습니다.
- 목민심서 : 백성의 입장이 되어 지방 관료들의 성실한 태도를 권장하며,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리는 책입니다.
- 수원화성 : 정조 임금 때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 지은 방어용 성곽입니다. 거중기를 이용하여 무거운 벽돌을 쌓아올려 만들었습니다.